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48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8일 (음력 12월 3일) 화요일

## 순천 연향동 금호타운아파트 주민들 '뿔났다'

순천시 연향동 금호타운 입주주민들이 관리 규약을 위반한 채 주민들에게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장의 해임을 촉구 하고 나서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월권 행위를 더 이상 용납 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일은 전남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 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호타운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 전원에 대 한 해임 의견을 받은 결과 전체 730세대중

### 입주자대표들 월권행위·갑질행태 반발 해임 촉구

### 비대위 출범...전체 730세대 중 344세대 해임 동의

344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관리규약상 1/10 이상만 받으면 해임요청 요건이 충족되지만 절반에 가까운 47% 찬 성을 이끌어냈다. 비상대책위는 지난 4일 아 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해임 서명부

를 정식으로 접수했다.

동대표 10명에 대한 5일 이상의 소명기간 을 거친 후 전체 입주자 과반수 이상(366대) 투표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7일 입주자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입주자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씨는 아파트 규약 을 어기고 제 멋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는 것.

김씨는 정년을 초과하고, 관리소장 경력이 3개월인 한모(67)씨를 관리소장으로 뽑 았다. 한씨는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다 관리소장에 응시하려는 전화를 받고와 결국 임명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한씨는 입주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주민들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입주 자 회장 지시만 따르는 황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김씨는 관리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 다. 재활용품 수집 처분 등 파지 수입을 경 비원들의 복지비로 지급해야하는데도 정상 처리하지 않은데 이어 최근 2년동안의 잠수 입 수합현황과 집행내역, 통장사본 등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또 입주주민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38% 인 상한데 이어 급수배관 교체 금액도 구체적 자료없이 타 아파트보다 8억여원이 높은 13 억원을 책정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입주주민들은 "아파트지회 사무실을 이방 궁처럼 꾸민 김씨가 봉사 정신보다는 주민 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해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김씨에 대한 사회 추구 표시로 모금 운동을 통해 조성한 노란 띠를 만들어 아파트 배란다에 걸어두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인 A씨는 "김씨는 관리비 수납은행을 갑자기 바꾸고 승강기 수리를 지연시킨 의혹이 있는 등 선량한 입주자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는 불신 덩어리인 입주 자회장이 불러낸 때까지 우리 입주주민들은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장 김씨는 주민들의 해임 동 의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법대로 하면 된다"고 전화를 끊었 다.

순천=김승호 기자



전두환 처벌 촉구 퍼포먼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7일 오후 광주지법 입구에서 청년민중당 광주시 당 당원들이 전세 현수막을 밟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Photo漫評

#### 빈강동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출신 김재민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는 조 수석의 압력으로 끝났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아 됐다니 1월 3일 상황이 급변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일이 벌어졌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제 김 수사관에 이어 신 전 사 무관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 기로 하자, 한국당은 운영위 위원들에 대한 사 보임을 진행했다. 사보임이 라기존에 맡고 있는 상임위를 그만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관련 인사들의 숙제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 영광~함평~신안~목포 내만 저수온주의보...양식장 피해 비상

전남도는 한파로 연안수온이 2~6℃까지 하락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7일 오후 2시를 기해 영광, 함평, 신안, 목포가 포함되는 충남~전남 서해 내만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해역의 수온은 영광, 낙월 3.5

℃, 함평만 2.3℃, 신안 압해 5.8℃, 목포 6.2℃로 양식생물 저수온 피해가 우려되므로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성어, 돌류, 조기, 쥐치 등은 저수온에 특히 취약해 양식어기에서는 사료 공급량 조절, 영양제 공급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

야 한다. 또 축제식 양식장에서는 동사 피해를 예방을 위해 양식장 평균 수심을 3m 이상으로 유지하고 면적의 1% 이상을 월동장으로 구축해 보온덮개를 설치하고 깊은 웅덩이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육상양식장은 정전 발생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보온덮개를 설치해 보 온을 유지해야 동사피해를 막을 수 있다. 양근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저수온 주의보 발령 시군에서는 양식생물에 영양 제를 공급하고 육상 양식시설에 보온덮개 를 설치해 한파로 인해 양식생물이 동사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 힐링하세요!

청정한 기후환경과 최고 품질의 해양치유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최적지입니다.

완도군에서는 2030년까지 1조원을 투입하여 해양헬스케어센터, 해양병원, 치유공원 등 공공시설과

해양리조트, 바이오기업 등의 민자시설이 복합된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